국외출장 결과보고

스페인 · 영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 스페인 2018 MWC 참관 및 영국 방문 외 -

◆ 기　　간 : 2018. 2. 26.(월) ~ 3. 4.(일), 5박 7일

◆ 방문국가 :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영국(런던)

2018. 3.

방송통신위원회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Ⅰ. 출장 개요 ····· 1

Ⅱ. 세부 활동 ····· 2

1. MWC 부스 참관 ····· 2

2. ARCEP(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 위원장 면담 ····· 10

3. FCC(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 ····· 14

4. GSMA 사무총장 면담 ····· 17

5. AEPD(스페인 정보보호청) 청장 면담 ····· 20

6. BBC(영국 공영방송사) 집행위원장 면담 ····· 23

7. OFCOM(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위원장 면담 ····· 28

Ⅲ. 보도자료 ····· 34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스페인, 영국과의 방송통신 정책 공유 및 교류·협력 강화

o 2018 MWC(이동통신 산업전시회) 참관 및 시장 동향 파악

2. 출장 국가 :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영국(런던)

3. 출장 기간 : '18년 2월 26일(월) ~ 3월 4일(일), 5박 7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효 성
2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국장	김 재 영
3	기획조정관	홍보협력담당관	진 성 철
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장	김 영 주
5	운영지원과	수행비서	손 견 우
6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사무관	이 성 용
7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주무관	박 민 규

5. 주요 활동

o **(정부 간 협력)** 스페인·영국 등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방송통신 민·관 교류 활성화에 기여

o **(MWC 참관)**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전시회에 참가하여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최신 방송통신 기술동향 파악

6. 선물수령 관련

o 선물 수령 여부 : O (수첩·볼펜, BBC 방문 기념)

o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Ⅱ. 세부 활동

1. MWC 부스 참관

□ 전시회 개요

o 전시회명 : (한글) 2018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영문) GSMA's Mobile World Congress 2018

o 개최기간 : 2018. 2. 26. ~ 3. 1. (4일간)

o 개최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o 개최규모 : 222,000㎡(야외포함)

o 참가규모 : 150개국, 2,300여 업체,약 108,000명 방문

o 주요전시품목 : 5G, AI , IOT, VR, 빅데이터, 클라우드, 커넥티드카 등 무선통신 모바일 전 분야

o 전시회 특징

- 유럽 최대 모바일/무선기술 관련 정보통신전문전시회로서 모바일 산업 생태에 속하는 이동통신사, 핸드셋 제조업체, 모바일장비-부품, 솔루션, 콘텐츠 공급업체들이 대거 참가

- 북미 CES에 이어 상반기 유럽을 대표하는 Mobile/IT 전시회

- 이동통신 및 단말기전시회 : 모바일엔터테인먼트/콘텐츠/표준 등의 트랜드 제품 및 핵심기술전시포럼, 세미나 Demonstration Stage,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 2018 MWC 주요 테마

① Future Services Provider : 5G 등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미래 발전 방향

② Networks : 5G, 네트워크 가상화(NFV),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s)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③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IoT 발전 등을 통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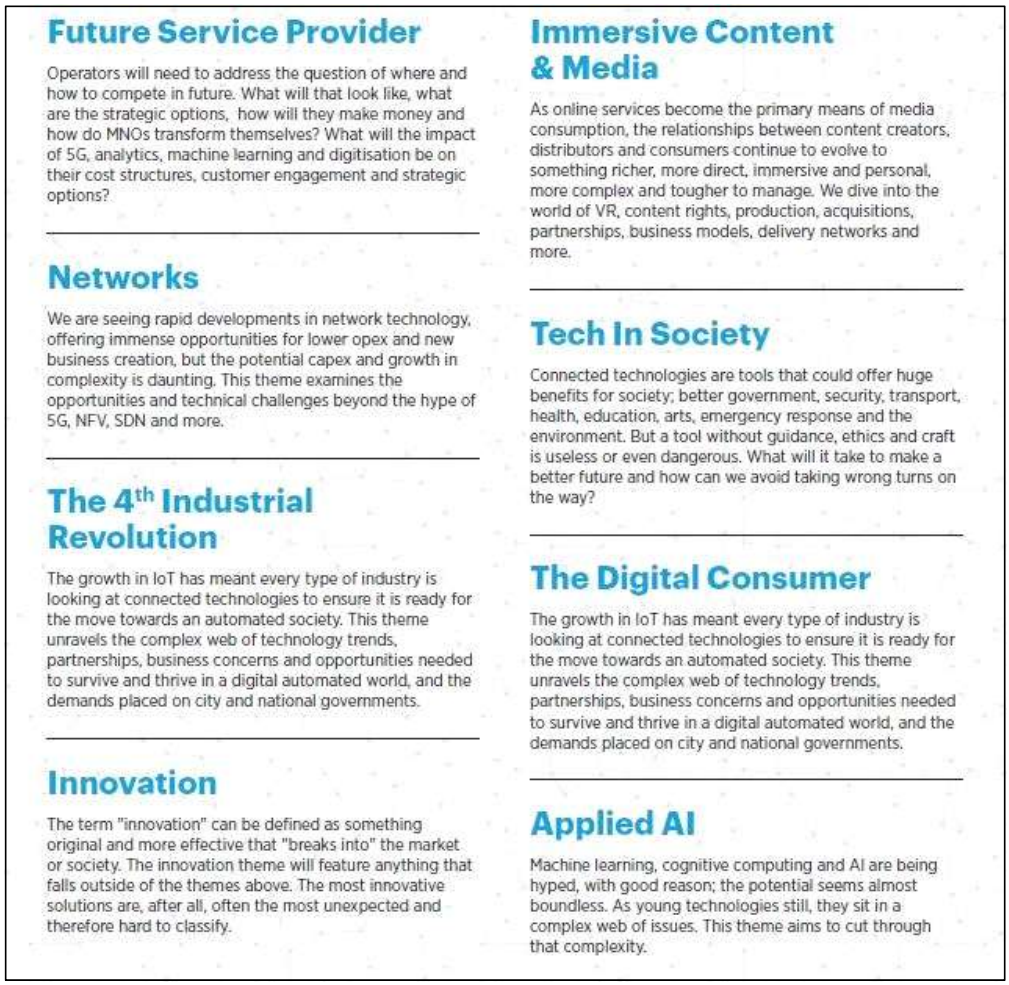
④ Innovation : 새로운 생각이나 기술의 도입이 아닌 좀 더 효율적인 제품, 과정, 서비스, 기술로의 변경되는 의미를 검토

⑤ Content & Media : 온라인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 결합, VR

⑥ Tech in Society : 네트워크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 발전 방향 및 고려사항 등

⑦ The Digital Consumer : 소비자 분석을 통한 소비자 요구 파악 기술 등

⑧ Applied AI : AI 도입에 따른 가능성 및 고려사항



Future Service Provider

Operators will need to address the question of where and how to compete in future. What will that look like, what are the strategic options, how will they make money and how do MNOs transform themselves? What will the impact of 5G, analytics, machine learning and digitisation be on their cost structures, customer engagement and strategic options?

Networks

We are seeing rapid developments in network technology, offering immense opportunities for lower opex and new business creation, but the potential capex and growth in complexity is daunting. This theme examines the opportunities and technical challenges beyond the hype of 5G, NFV, SDN and mo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rowth in IoT has meant every type of industry is looking at connected technologies to ensure it is ready for the move towards an automated society. This theme unravels the complex web of technology trends, partnerships, business concerns and opportunities needed to survive and thrive in a digital automated world, and the demands placed on city and national governments.

Innovation

The term "innovation" can be defined as something original and more effective that "breaks into" the market or society. The innovation theme will feature anything that falls outside of the themes above. The most innovative solutions are, after all, often the most unexpected and therefore hard to classify.

Immersive Content & Media

As online services become the primary means of media consump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tent creato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continue to evolve to something richer, more direct, immersive and personal, more complex and tougher to manage. We dive into the world of VR, content rights, production, acquisitions, partnerships, business models, delivery networks and more.

Tech In Society

Connected technologies are tools that could offer huge benefits for society; better government, security, transport, health, education, arts, emergency response and the environment. But a tool without guidance, ethics and craft is useless or even dangerous. What will it take to make a better future and how can we avoid taking wrong turns on the way?

The Digital Consumer

The growth in IoT has meant every type of industry is looking at connected technologies to ensure it is ready for the move towards an automated society. This theme unravels the complex web of technology trends, partnerships, business concerns and opportunities needed to survive and thrive in a digital automated world, and the demands placed on city and national governments.

Applied AI

Machine learning, cognitive computing and AI are being hyped, with good reason; the potential seems almost boundless. As young technologies still, they sit in a complex web of issues. This theme aims to cut through that complexity.

□ 글로벌 주요 업체 전시

① 에릭슨(Ericsson)

o **(주요 전시품목)** 5G 기반으로 스웨덴 스톡홀름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간 실시간 화상통화 서비스 전시

o **(5G 관련)** 5G 장비개발을 완료하였으며, 5G 지원 SW는 연내 개발 완료 예정으로 '19년 초 5G 상용화 예정

- 전 세계 38개 이동통신사와 44개 대학, 20개 업체들과 5G 활용 방안을 개발 중으로 5G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이통사의 연간 매출을 2026년 기준 663조원으로 예상

< 에릭슨 전시관 참관 >

② 화웨이(HUAWEI)

o **(주요 전시품목)** 미디어패드 M5·M5 프로, 메이트북X 프로 공개

- (미디어패드) 전원버튼에 지문인식을 탑재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2.5D 커브드 엣지 글라스와 메탈소재 후면케이스 적용

- (메이트북X 프로) 화웨이 노트북에 베젤리스 디자인을 적용한

첫 제품으로 전체화면비율이 88%, 무게는 1.3kg, 30분 충전하면 6시간 이상 사용가능한 퀵차지 기능 보유

o **(5G 관련)** 글로벌 이통사와 협업하여 5G 네트워크를 2020년까지 상용화 할 계획으로 5G 칩셋, 네트워크, 스마트폰 등 개발에 총력

< 화웨이 전시관 참관 >

③ SK텔레콤

o **(주요 전시품목)** 5G 기반 차량사물통신(V2X), 히어(HERE)와 협력한 자율주행용 HD맵, 저전력 사물 인터넷(IoT) 통신망 Cat.M1 공개

- 전시장에 5G 기지국을 설치하여 5G 영상통화, 5G 국제표준(NSA) 기반 무선전송기술, AI기반 네트워크 관리솔루션 '탱고', 홀로그램, VR 등의 서비스 시연

o **(기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5x5mm)의 양자난수생성기(QRNG) 개발 등 양자암호통신 기술 공개

< SK텔레콤 전시관 참관 >

④ 삼성전자

o **(주요 전시품목)** 삼성 스마트폰 신규 모델, 갤럭시 S9, S9+ 공개

- (갤럭시 S9) 5.8인치(S9) / 6.2인치(S9+) QHD 디스플레이와 1200만 화소의 슈퍼스피드 듀얼 픽셀카메라, 안면인식과 홍채인식을 결합한 Intelligent scan 등의 기능을 탑재

o **(기타)** 가전제품들을 IoT로 연결하고 빅스비(Bixby)로 제어하는 기술, 모바일용 메모리, 초고속 모뎀, AI 기능을 강화한 AP 등 전시

< 삼성전자 전시관 참관 >

⑤ LG전자

o **(주요 전시품목)** 업그레이드 모델, V30S 싱큐(ThinQ) 공개

- (V30S 싱큐) ‘17년 가을 출시된 V30을 기반으로 램, 메모리 등 스펙을 향상시키고 Q 렌즈, LG 인공지능 ‘싱큐’ 적용

※ Q 렌즈 : 아마존, 네이버 등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상품 정보를 검색 및 보여주는 기능

o **(기타)** LG전자의 AI브랜드 ‘싱큐존’을 구성하여 가전제품들과 스마트폰 연동기술 시연, 프리미엄 사운드인 쿼드 DAC 체험관 등을 마련

< LG전자 전시관 참관 >

⑥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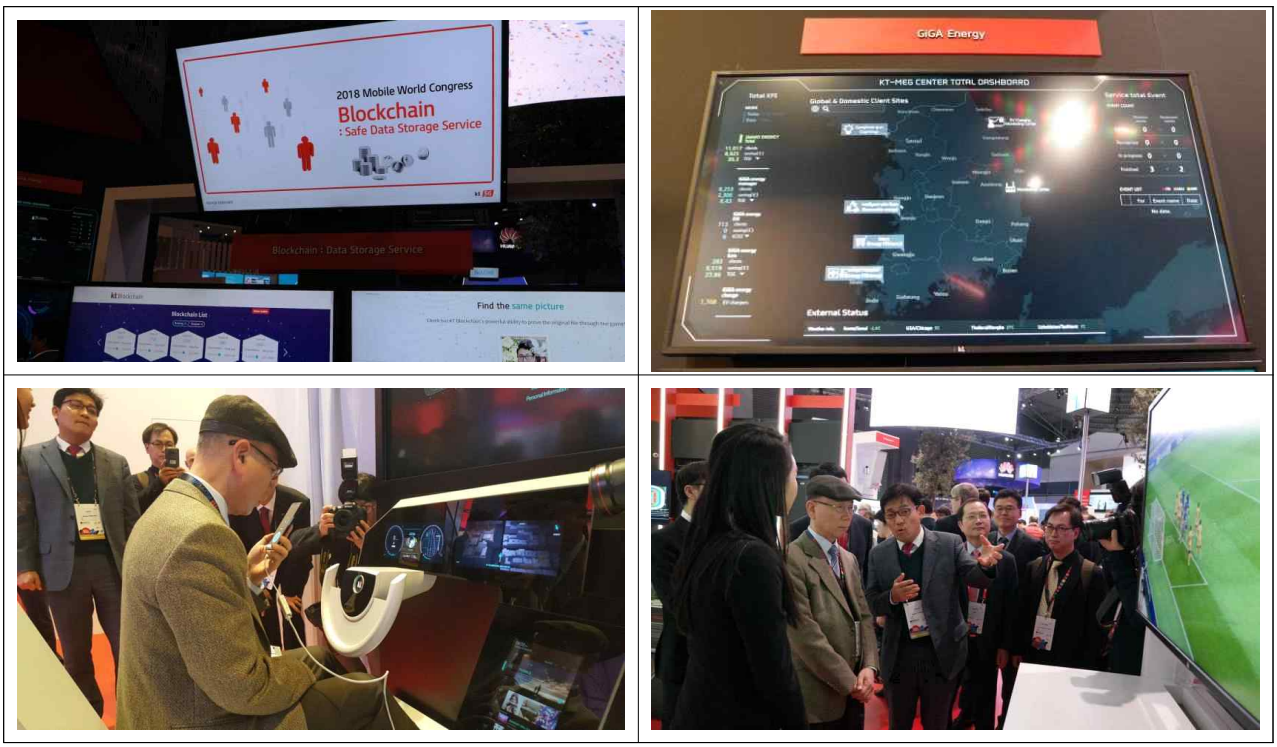
o **(5G 관련)**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5G 방송중계서비스, 5G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기가 드라이브', 시범단말 등 5G 통신기술 전시

- (5G 방송중계 서비스) 여러 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해 송출하는 5G 중계 방송 시연

o **(주요 전시품목)**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위·변조 차단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플랫폼 '기가아이즈' 등 4차산업 관련 서비스 전시

- (기가 아이즈) 감시영역 설정, 실시간 침입 알림, 고화질영상 실시간 클라우드 서버 저장 등의 기능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CCTV

< KT 전시관 참관 >



⑦ KOTRA 한국관

o **(비주얼캠프)** VR, AR 및 모바일용 시선탐지 소프트웨어 전시

o **(콘텔라)** 기업용·가정용 LTE 소형 기지국, 로라(IoT 통신기술) 등 전시

o (**포인트모바일**) 의료 및 산업용 PDA, 모바일 컴퓨터 등 전시

o (**주니코리아**) 소형 LTE 기지국 및 관련 솔루션 전시

o (**그래핀스퀘어**) 전자파 차단 콘텍트 렌즈 등 그래핀 필름 전시

< KOTRA 전시관 참관 >

2. ARCEP(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 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8.2.27.(화) 15:30~16:30 / MWC 행사장 Room 13

□ **참석자**

o (방통위) 위원장님, 김재영 국장, 진성철 과장 등

o (ARCEP) Sebestien Soriano 위원장, Jean Cattan 고문

□ **세부 면담내용**

【 5G 정책방향 】

o (KCC) 한국에서는 '18년 6월 주파수 경매, '19년 3월 상용화 할 예정인데, 프랑스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o (ARCEP) 현재는 5G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하고 있고 시범서비스를 먼저 실시할 예정.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9개 도시(파리 미포함)를 파악, 공항·병원·항구 등 관계자들이 pre-commercialized 5G에 참여할 것임. 시범서비스 운영 후 결과 토대로 '19년 경매를 준비할 계획임.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

o (KCC) 한국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의 세금, 망 사용료에 대해 국내 통신사들의 불만이 있음. 이와 관련 ARCEP의 1:2.5 원칙에 저도 공감함. 이와 관련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o (ARCEP) 명확한 규정은 없음. 유럽과 프랑스에서는 망 관리와 상호접속, 두 분야로 나눔.

- 망 관리는 유럽의 Open Internet Regulation을 따르고 통신사들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됨. 트래픽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zero rating 제공을 위해 콘텐츠나 앱 사업자로부터 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망 관리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음. 소비자로부터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나 앱 사업자로부터도 돈을 받는 양면시장(2-sided market)을 형성할 수 없음.

- 상호접속 문제에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분야임. 직접 상호접속을 하거나 피어링(peering)을 하면 사업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직접 상호접속을 위해 구글은 프랑스 통신사들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그리고 규제기관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할 수 있는데, 주로 시장에서 먼저 해결이 됨. 저희는 IP상호접속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State of the Internet)를 발간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함. 다음 보고서는 5월에 발표될 것임. 상호접속을 통해 통신사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적기 때문에 광케이블(fiber), 4G나 5G망을 지원할 수 없음.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subscription)이 30~35 유로 RPU(인당 수입, Revenue per user)라면 상호접속 수입은 1유로.) 그래서 상호접속 비용은 통신사에게 주 재원이 되기보다는 CP들이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도록 incentive를 주는 것임. 한국은 어떠한지?

o (KCC) 기본적으로 상호접속이 아닌 경우에는 망 중립성이 적용되고, 상호접속 관련해서는, 회사 간 계약을 함. 얼마전 페이스북이 사전 협의 없이 cache server를 이동시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생겨 현재 조사 중에 있음.

- ISP 사업자 간에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규칙에 의해 발신자가 부담함.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사이에는 자율협상으로 원칙이 정해짐.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으면 방통위가 사후적으로 시정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분쟁을 해결함.

- 최근에 Naver같은 CP들은,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해 지불하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반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3~4배의

트래픽을 사용하는데도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o (ARCEP) 그럼 Naver 같은 CP는 상호접속 비용을 내지만 페이스북은 안 내는지?

o (KCC) 한국에는 ISP-CP간에 상호접속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간 자율협상을 통해 이루어짐. 그래서 업체들의 협상력에 따라 망 이용대가가 달라짐. 그래서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망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o (ARCEP)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임. Netflix는 프랑스 사업자에게 비용지불을 하지 않으려 해서 한 프랑스 사업자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대신 상호접속 capacity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Netflix의 품질을 저하시킴. 이에 이용자 불만이 생기면서 사업자에게는 압박이 가게 됨. 하지만 사업자가 Netflix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o (KCC) 프랑스의 CP에게는 어떤 망 이용 대가가 있는지와 구글, 페이스북의 이용 대가에 실제로 차별이 있는지?

o (ARCEP) 프랑스 또한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비용 지불에 차이는 있지만 특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음.

o (KCC) 이와 관련 국내 사업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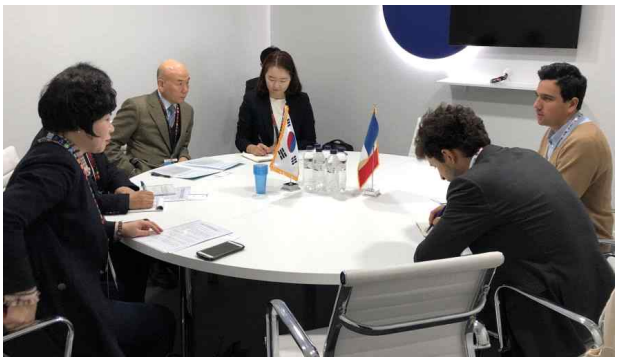
o (ARCEP) 동의함. 우리는 '18년 Content Delivery Network(CDN)을 주제로 올해 보고서를 발표할 것임.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On-net CDN을 통해 프랑스 통신사망에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호스팅과 상호접속 간 사각지대 분야이고 국내 통신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싶으나 글로벌사업자의 영향력이 거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함. 이와 관련 한국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과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o (KCC) 프랑스는 '16년 10월 제정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에서 프랑스 플랫폼 사업자에 투명성 의무화를 부과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함.

o (ARCEP) 현재는 제한적인 결과가 있음. 원칙은 좋지만 시행이 잘 안됨.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에서 4월 달에 대규모 플랫폼과 중소기업 간 관계에 대한 규제를 제안할 예정이고, 이를 기대하고 있음.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table>
<tr><td> 
< 면담 장면 ></td><td>
< 면담 장면 ></td></tr>
<tr><td>
< 기념 사진 ></td><td>
< 기념 사진 ></td></tr>
</table>

3. FCC(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8.2.27.(화) 16:45~17:45 / MWC 행사장 Room 3

□ **참석자**

o (방통위) 위원장님, 김재영 국장, 진성철 과장, 김영주 팀장 등

o (FCC) Ajit Pai FCC 위원장, Tom Sullivan 국제협력국장, Rachel Vender 국제협력 자문관 등

□ **세부 면담내용**

【 5G 정책방향 】

o (KCC) 최근 한국에서 올림픽을 통해 5G 통신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내년 3월 달에 본격적 서비스가 개시될 것임. 미국 5G정책은 어떠한지?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FCC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o (FCC) 5G가 바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좋은 예라고 생각함. 미국은 5G 주파수와 인프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예정임.
주파수 관련, 올 11월에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를 실시하고 그 후 24Ghz 대역을 경매할 계획을 발표했음. 3.5Ghz, 3.7~4.2Ghz, 6Ghz 등 중·고 주파수 대역도 5G 혁신을 위해 테스트베드 대역으로 검토 중.

- 인프라 관련, 5G 망의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조만간 FCC는 무선 인프라 규정을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5G 구도(architecture)에 맞게 규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원칙임. 수 만개의 소규모 cells을 빠르게,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배치하기 위해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통신사도 5G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Verizon과 AT&T는 조지아 주,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에서 시범서비스를 게시할

것이고 지난 금요일 FCC는 고정 무선 상업 서비스(fixed wireless commercial solution)를 위한 삼성의 기지국(Base Station)도 허가했음.

- 5G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을 기대함. 한국이 5G 주도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채택한 5G 정책에 대해 배우고 싶음.

【 ATSC 3.0,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

o (KCC) 한국은 아날로그 시절 PAL방식이나 SECAM방식이 아닌 미국의 NTSC 방식을 선택했음. 또한 디지털에서도 유럽의 DVB T-2방식 보다는 미국의 ATSC방식을 택했고, 현재 ATSC 3.0으로 추진하고 있음

o (FCC) 저희는 ATSC 3.0이 공공안전과 재난방송에 기여할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태풍과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이와 관련 방송사들이 ATSC 3.0으로 휴대기기로 재난정보를 보내는 기능에 관심이 있음.

o (KCC) ATSC 3.0이 재난방송에 훌륭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함. 미국은 UHD를 다채널 방송으로 할 계획인지? UHD 모바일은 어떻게 계획하는지?

o (FCC)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중임. 하나의 원천에서 많은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방송의 장점과 모든 사람들이 휴대하는 기기에 기반한 이동성의 힘을 통합하는 모바일 방송을 장려하고 싶음.

【 망 중립성 문제 】

o (KCC) 현재 FCC에서는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o (FCC) 저희는 ISP들이 망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보고 사후규제 방법을 택했음. 특히 외딴 지역이나 저소득층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데 필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망 투자가

저조했음.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망을 확장하고, 무제한 데이터 플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함.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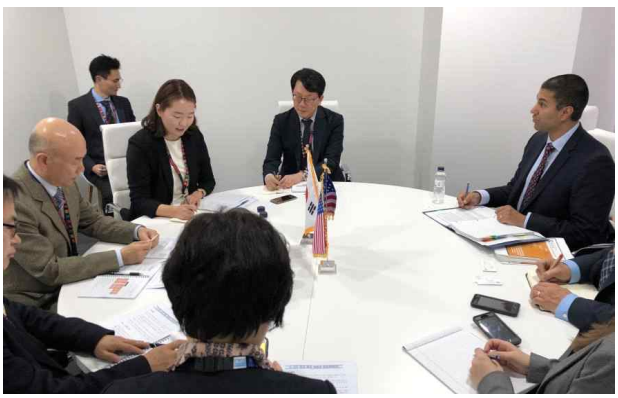
- 특히 5G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함. 5G 시행은 주파수 확보와 망 확장을 위한 많은 자본을 요구하고, network slicing이나 트래픽 우선순위(prioritization) 같은 적극적인 망 관리가 필요로 할 것임. 그래서 5G 전략 시행과 무거운 규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음.

【 기 타 】

o (KCC) 작년부터 시작된 양 기관 간 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인적 교류까지 활성화되기를 바람.

o (FCC) 좋은 생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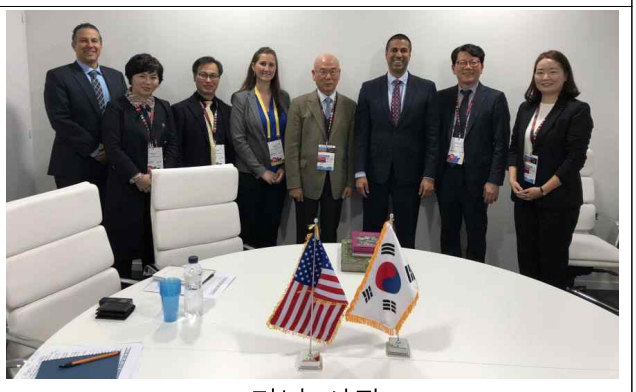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선물 증정>

<기념 사진>



< 기념 사진 >

4. GSMA 사무총장 면담

□ **일시 /장소** : ‘18.2.28.(수) 09:30~11:00 / GSMA 사무총장 집무실

□ **참석자**

o (방통위) 위원장님, 김재영 국장, 진성철 과장, 김영주 팀장 등

o (GSMA) Mats Granryd 사무총장, 김태경 아태지역 대표 등

□ **세부 면담내용**

o (GSMA) GSMA는 올해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번 MWC에 참가하신 점을 기쁘게 생각함. 과거에는 이동성(mobility)과 기술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5G 등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음.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Creating a Better Future)란 주제를 선정했음. 따라서 올해에 기술기업 외 국가, 은행, 자동차 산업 등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가함.

o (KCC) 이렇게 매년 커다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한다고 들었음.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이끌어주신 노고를 치하하고 싶음. 더구나 금년에 ‘모바일을 통한 더 나은 삶’란 주제를 선정했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 질이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바일통신이 적용되면 참 좋을 거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생각함.

o (GSMA) 과거 3G에는 유럽이 주도지역이었고, 4G에는 미국, 이제 전 세계가 5G 실현을 위해 달리고 있음. 유럽은 당연히 주도하지 못하고, 미국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실제로 실현하고 있음. 그리고 가장 많이 실현하는 국가는 바로 한국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위원장님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음. 한국 정부가 KT, SKT, LGU+와 하는 리더십에 축하 말씀 드리고 싶음.

o (KCC) 제가 듣기로 평창올림픽에서 성화 봉송자로 뛰시고 실제로 5G도 경험해보셨을 거고, UHD 방송과 UHD 모바일을 체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함.

o (GSMA) 올해 저의 기조연설에서 KT와 삼성의 카메라, 드론, 5G 태블릿 등 올림픽에서 보여준 기술을 높이 평가했음. 또한 기술 중심 산업에서 규제와 정책을 강조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음.

o (KCC) 규제가 산업발전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발전에 도와주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가 모바일 통신, 첨단기술을 진작시키는데 노력할 것이고, 사무총장님의 지혜나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o (GSMA) KT와 SKT에서 적극적으로 이사회 활동을 하셔서 GSMA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앞으로도 저희 생각을 공유하겠음. 기술의 변화 속에서 GSMA는 데이터의 역외이전에 관심이 많음. 이런 분야에서 방통위와 협력을 하고 싶음. 그리고 미국에서 화두인 망 중립성 문제도 중요함. 저희는 개방된 인터넷(Open Internet) 원칙을 기본으로, 특정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함. 특히 5G 시대에는 Time slicing같은 기술이 필수적일 것이며, 자원을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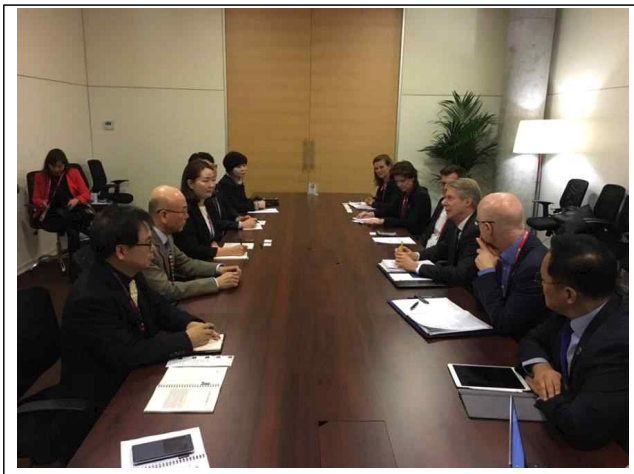
o (KCC) 금년 5월에 실행이 되는 GDPR에 있어 저희도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EU 집행위로부터 전체 적정성은 아니더라도, 부분적 적정성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함.

o (GSMA) 설비투자(capex)를 많이 하는 모바일 사업자와 OTT사업자 간에 관계를 잘 파악해야함. 서로를 돕는 방향을 모색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함.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환담 장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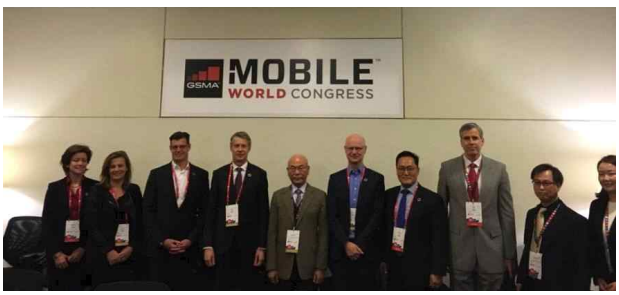
< 환담 장면 >



< 면담 장면 >

< 선물 증정 >

< 기념 사진 >



< 기념 사진 >

5. AEPD(스페인 정보보호청) 청장 면담

□ **일시 /장소** : ‘18.3.1.(목) 10:00~11:30 / AEPD 회의실

□ **참석자**

o (방통위) 위원장님, 김재영 국장, 진성철 과장, 김영주 팀장 등

o (AEPD) Mar Espana 청장, Joaquin Perez Catalan 검사관 등

□ **세부 면담내용**

【 적정성 평가 승인 협조요청 】

o (KCC) ’15. 10월부터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EU 집행위(EC)와 협의하고 있으며 ‘17년 11월 20일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EU의 집행위원(베라 요로바)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방통위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온라인 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스페인은 ‘곤잘레스 사건’ 등으로 EU 회원국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음.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조속한 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함.

o (AEPD)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선진국으로 알고 있음.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하겠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글로벌 사업자 규제 】

o (KCC)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AEPD는 엄격하게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글로벌 사업자가 법령 위반 했을때 조사·집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국제 공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o (AEPD) 해당업체와의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사례에 대해 공유하겠음.

【 개인정보보호 보호 및 활용 】

o (KCC) 한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 익명정보의 개념 도입을 위한 논의중에 있음. 스페인에서의 가명정보의 활용 현황은? 비식별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o (AEPD) 스페인에서는 데이터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익명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련 부처의 이견으로 비식별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주관부처는 현재까지 없음.

【 GDPR 대응 현황 】

o (KCC) GDPR 적용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GDRP 안내서'와 'GDPR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였으며 설명회 등 기업의 규제 준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임. 스페인에서 GDPR에 대한 대응현황은?

o (AEPD) AEPD는 중소기업들이 GDPR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 규제준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KCC) AEPD는 스페인 기업의 GDPR 규제 준수를 위해 DPO(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인증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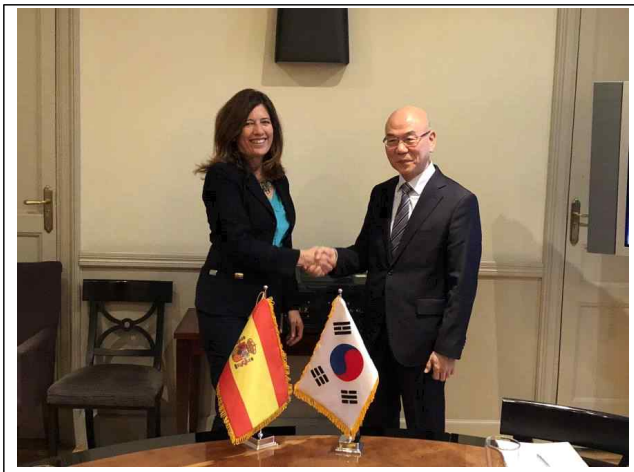
o (AEPD) 우리는 세계 최초로 DPO 인증 가이드를 개발하였음.

AEPD에서 DPO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인증기관이 DPO 인증업무를 수행함. 참고를 위해 관련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면담 장면 >



<기념 사진>

< 기념 사진 >

6. BBC(영국 공영방송사) 집행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8.3.2.(금) 11:00~12:25 / BBC 사무실

□ **참석자**

o (방통위) 위원장님, 김재영 국장, 진성철 과장, 김영주 팀장

o (BBC) Tony Hall 집행위원장, Helen Keefe 정책국장, David Jordan 편집과장, Phil Harrold 비서

□ **세부 면담내용**

【 BBC 칙허장 개정에 따른 영국 방송정책 변화 】

o (KCC) '16년 칙허장이 개정되면서 그 전과는 달리 BBC는 OFCOM의 감독을 받는데, 그렇게 법이 바뀐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BBC독립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함.

o (BBC) 새 칙허장은 아래의 3가지 주요 사안이 합의되었음.

- **(BBC의 규모와 범위**(Scale and scope) **유지)** 방송 생태계에 BBC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음. BBC가 뉴스, 각 지역과 국가, 창의성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활발한 토론 끝에 BBC의 기본 사명인 정보 제공(inform), 교육(educate), 오락거리 제공(entertain)은 재확인되었음.

- **(독립성**(independence)**)** BBC는 칙허장이 최대한 긴 유효기간을 갖도록 노력했음. 정부나 타 관계자는 5년 같은 짧은 기간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11년을 주장했고 받아냈음. 왜냐하면 몇 년마다 정부에 우리의 목적과 성격을 증명해야 하면 우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BBC 독립성을 위해 칙허장의 유효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음. 그리고 11년 동안 수신료가 주요 재원으로 보존됨.

- **(규제와 거버넌스)** 가장 근본적이고 큰 변화는 이제 OFCOM이 BBC를 규제한다는 것이고, 이는 BBC의 독립성과 연관된 문제임. 사상 처음으로 통합된 Board가 만들어졌음. Board가 BBC의 결과물을 책임지고 BBC의 공적책무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함. OFCOM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에서 타 방송사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는지도 감독함. 이것이 새로운 변화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했고 칙허장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을 지지했음. OFCOM의 운영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응해야하고, 저희 운영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

o (BBC) 대략 10년 전 BBC는 12명의 Governors에 의해 규제를 받았고, 그 이후 BBC Trust가 생겼는데 사실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음. BBC Trust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번 BBC를 비판해야 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 했음.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미디어 기업처럼 많이 성숙해졌고 잘 됐다고 생각함.

o (KCC) OFCOM이 감독한다는 것은 통제가 아닌 협력으로 생각됨. 그런 점에서는 공적책무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함.

o (BBC)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시장중심적인 경제학자들이 측정하기 어려운 혜택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음. 그래서 OFCOM 관계자들인 경제학자나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적응해야 함.

o (KCC) 최근 공영방송의 방송 상업화 영향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BBC는 어떠한지?

o (BBC)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으면, 국민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BBC의 전략은 수신료를 바탕으로 공영서비스 제공과 상업서비스 제공, 이 두 가지를 같이 펼쳐야함. 특히 고품질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세계 판매를 같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함. 그리고 OFCOM은 BBC의 상업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임.

【 독립제작사 육성 정책 관련 】

o (KCC) 한국의 독립 제작사들이, 제작사 또는 방송사로부터 적정한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영국에서 공영방송사들은 이런 문제를 2013년도 Communication Act 285조에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함.

o (BBC) 예전에는 BBC만이 TV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말씀하신 Communication Act에 따라 독립제작사들이 더 공식적인 방법으로 BBC와 타 방송사 편성에 참여하게 되었음.

- 10년 전 칙허장 개정에서는 "창의적인 경쟁의 틀" (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라는 원칙을 도입했고, 이는 편성 일부는 BBC에서 보장, 일부는 독립 제작사에서 보장, 그리고 마지막은 경쟁을 통해 편성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새 칙허장에서는 BBC 편성은 BBC 인하우스 TV 제작사들과 독립제작사 간 완전한 경쟁을 통해 결정됨.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임.

o (KCC) 이 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o (BBC) 지난 몇 년간 드라마는 많은 부분을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해 왔음. 이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 더 좋은 품질, 그리고 전 세계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공동제작 기회가 오게 됨. 그러나 다른 나라와 지방에서는 경쟁이 떨어짐.

o (KCC)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할 때 자기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독립제작할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BBC 시설이나 인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을 어떻게 나누는지?

o (BBC) 새 시스템 하에서는 외주제작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IP)은 외주제작사가 갖게 되고, IP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외주제작사가 결정함. 저희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일부 제작사들은 BBC의 글로벌 시스템을 사용해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함. 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BBC 스튜디오와 포스트 프로덕션(post production) 시설은 다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주제작사들은 이를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효율적인 국제방송 관련 】

o (KCC) BBC World Service가 뉴스, 온라인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World Service가 기존의 BBC World News Channel하고 겹치는 문제, 중복성이 있는지? '18년에도 Studio가 Worldwide와 합병되어 New BBC Studio가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의 효과는?

o (BBC) World News와 World Service 는 다른 재원으로 운영함.

- BBC World News은 상업 자금(commercially funded)으로 TV와 온라인상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BBC World News는 오로지 상업자금, 즉 광고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미국의 CNN International처럼 보조금을 받지 않음.

- BBC World Service는 공공자금(publicly funded)으로 라디오, 온라인, 그리고 일부 TV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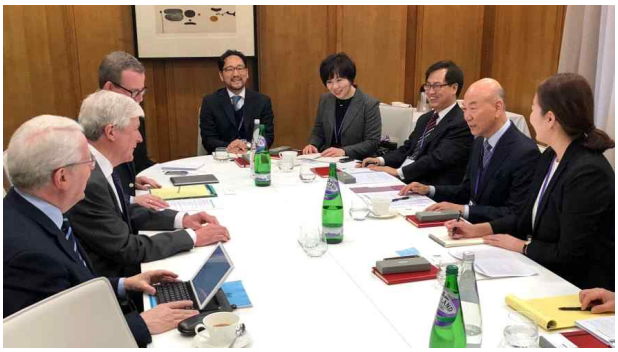
- BBC Worldwide는 BBC 프로그램, DVD, 포맷, 책, 잡지 등 판매로 BBC의 지적재산권(IP)를 영국과 전 세계에 활용함. 그리고 상업 프로그램 제작 자회사인 BBC Studio는 규제당국의 승인에 따라 4월달에 BBC Worldwide와 합병될 예정임.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체계 / BBC 재원 및 수신료 정책 】

o (KCC) 최근에 한국은 방송을 VOD나 OTT를 통해 보는 경향이 있음. 영국은 어떤지? 나이 많은 시청자들은 실시간방송을 많이 보지만, 젊은 층은 모바일이나 OTT로 옮겨가는데, BBC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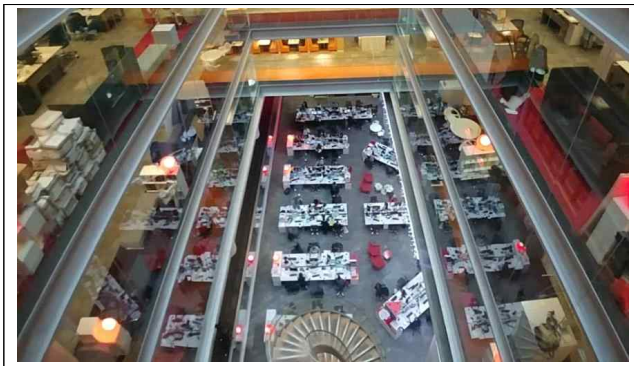
o (BBC) 영국에서도 그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함. 젊은 층의 시청습관이 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통 방송도 우리가 5년 전에 예상한 것보다 잘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양쪽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함. BBC도 스트리밍 서비스인 i Player를 가지고 있음.
이는 BBC 비즈니스 모델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함. 전통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그램을 짧은 기간 동안 방영한 뒤 다른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시청자들은 Netflix처럼 프로그램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언제나 보기를 원함. 이러한 추세의 비용 부담, 그리고 고품질 콘텐츠의 비용부담 이슈가 우리에게 당면한 전략 과제임.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기념 사진>



< 방송국 시찰 >

<방송국 시찰>

7. OFCOM(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8.3.2.(금) 15:00~16:30 / OFCOM 회의실

□ **참석자**

o (KCC) 위원장님, 김재영 국장, 진성철 과장, 김영주 팀장 등

o (OFCOM) Terence Burns 위원장, Kevin Bakhurst 국장, Camilla Bostani 과장 등

□ **세부 면담내용**

【 BBC 칙허장 개정에 따른 영국 방송정책 변화 】

o (KCC) ‘16년 칙허장이 개정되면서 그 전과는 달리 BBC를 감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법이 바뀐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BBC 독립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함.

o (OFCOM) 과거에는 BBC Trust가 BBC를 감독했음. 이번에 칙허장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BBC의 독립된 규제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OFCOM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음.

칙허장에 의해 OFCOM의 BBC 규제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됨

- **(편집/편성 콘텐츠 기준**(editorial standards)) 이미 타 방송의 편성 기준, 즉 정확성, 공정성, 중립성 등을 규제하고 있었음.
- **(BBC 편성 실적**(programming performance)) 영국 의회는 BBC 방송 편성이 차별화되고(distinctive) 교육과 뉴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 **(경쟁**(competition)) OFCOM은 BBC의 기존과 새로운 서비스가 공익(public interest)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함.

o (KCC) BBC가 OFCOM 규제를 받도록 칙허장을 개정하였는데 이렇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o (OFCOM) 20~22 년 전까지 만해도 Board of Governors가 BBC를 운영했음. Governors는 칙허장에 의해 권한을 받고 BBC의 전략을 세우고 또 BBC를 감독하는 역할을 동시에 했음. 그리고 10년 전, 이 두 역할을 분리해야한다는 생각에 BBC Trust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BBC Trust는 현재 OFCOM이 하는 규제감독 역할과 회사의 이사회(Board)가 하는 역할을 같이 했기 때문에 Trust가 BBC의 진흥기관(supporter)인지, 규제기관(regulator)인지에 대해 혼돈이 있었음. 이것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이 두 역할을 분리하기로 했고, OFCOM이 규제기관이 되었음.

- 이미 OFCOM은 콘텐츠 관련 표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역할이 확장되었음. BBC 설립부터 이사회(Board)의 역할과 규제기관(regulator)의 역할에 대한 혼돈이 있어왔음. 이제는 이 새로운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OFCOM이 감독해야 함. 이 체계는 저희한테 새롭기도 하지만 BBC 경영진에게도 새로운 것임.

o (KCC) BBC Trust는 내부기관의 성격으로 보고, 자율규제만으로는 정당화 안 된다고 생각함. 사적 기업이 아니고 공적 기업이고 준조세인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외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o (OFCOM) 한국 수신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o (KCC) 영국은 연 250,000원 정도로 알고 있음. 한국은 영국 8분의 1 수준인 연 30,000원 정도임.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인상을 시도해도 승인이 어려움. 다만 전기료에 부과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음. 일부는 광고로 충당을 함.

【 이용자 보호 정책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체계 】

o (KCC) 인터넷 상 가짜 뉴스, 음란물, 인터넷 상 내용 규제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시는지?

o (OFCOM) OFCOM에서는 일부 VOD 콘텐츠와 BBC 웹사이트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지만, 그 외 증오발언이나 음란물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 중. 또한, 명예훼손 관련 일반적인 법은 있지만 OFCOM은 온라인상 내용보다는 방송 내용을 규제함. 그러나 이 두 매체가 서로 융합되면서 이러한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음. 유럽은 SNS를 콘텐츠 보다는 플랫폼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책임자를 지정하기가 어려움. 어디까지 플랫폼에 책임이 있고, 어디까지 개인에게 있는지, 또는 개인의 익명성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
최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Google이 테러 관련 게시물을 1시간 내 내리도록 권고(recommendation)를 발표했음.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대응해야하는 도전과제라고 생각함.

o (KCC) 최근 VOD나 OTT로 방송시청이 가능하므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불명확한데, 이와 관련 OFCOM의 의견은 어떠신지?

o (OFCOM) 현재 EU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AVMSD, Audio 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을 따르고 있고 AVMSD는 YouTube나 Netflix도 규제하고 있음. Netflix는 네덜란드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규제를 받고 있음. 이렇게 EU에서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 원칙을 채택하는데, 영국이 EU를 떠날 시 이러한 문제는 저희에게 복잡해짐.
방통위는 온라인상 콘텐츠를 어느 범위까지 규제하는가? TV와 유사한 콘텐츠만인지, 또는 익명성 문제가 포함된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규제하는지?

o (KCC)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모든 콘텐츠를 규제함.

o (OFCOM) 가짜 뉴스를 포함해 콘텐츠 내용 및 기준(editorial standards)에도 그들을 규제하는지?

o (KCC) 현재까지는 자율규제를 유도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많이 내는 데에 비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은 트래픽을 엄청나게 유발시킴에 불구하고,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 전문가와 NGO 그리고 외국 기업들을 참여시켜 협의체를 구성하였음.

o (OFCOM) 유럽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o (KCC) 제가 며칠전 프랑스 ARCEP 위원장님과 논의했는데, 프랑스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협력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정책의 보조를 맞추기로 했음. OFCOM이 만약 이 역할을 맡게 되면 OFCOM과 보조를 같이 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함.

o (OFCOM) 좋은 생각임. 정부에서 OFCOM의 구체적인 소관업무를 결정함. 저희는 사전에 준비하고 정부에 조언을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소관업무는 법에 규정되고, 법이 바뀌어야 할 것임. 말씀하신대로 방송과 통신은 융합되고 과거의 방송과 통신의 구분은 이제 적용할 수 없으며 변화의 속도도 빠름.

【 망중립성 및 5G 관련 】

o (KCC) 망 중립성 관련해서 미국의 FCC 위원장은 폐기선언을 했음. OFCOM의 입장은 무엇인지? Fast lane이나 zero rating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o (OFCOM) 일반적으로 저희는 미국 모델을 추구하기 보다는 EU의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음.
몇 년 전 EU가 망 중립성 규칙을 채택했을 시 미국의 규제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았음. 그러나 파이 위원장님이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면서 그 상황이 바뀜.

미국과 유럽 상황은 매우 다름. 유럽의 규제를 보면, 예를 들어 5G에 networking slicing이 금지된 것으로 읽어질 수 있는데, 사실 바로 이러한 기술은 5G가 가능케하는 효과적인 망 관리 도구임. 2013년 망 중립성 원칙이 세워질 때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예상하지 못 했고, 이제는 이러한 기술이 규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음.

o (KCC) 얼마전 평창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해서, 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객들에게 보여줬음. 올 6월 5G 경매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상용화할 것인데, 영국 준비는 어떠한지?

o (OFCOM) 5G 주파수를 위해 경매를 현재 진행 중임. 여러 통신사들이 한차례 입찰에 참여했으며 5G 주파수 경매 초기 단계에 있음.

【 독립제작사 육성정책 관련 】

o (KCC) BBC 등 영국의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와 외주제작사 협회가 code of practice를 만들고 OFCOM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함.

o (OFCOM) PSB와 외주제작사들이 협상을 통해 code of practice를 작성하고 OFCOM은 이를 승인함. OFCOM은 code of practice에 대한 기준(guidelines)이 있고 만약 불만(complaint)이 있으면 조사함. 이러한 체계를 통해 외주제작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음. 저작권에 대한 더 많은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해외로 판매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음.

오히려 하나의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 전통적인 방송사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함. BBC나 ITV가 독점하기 보다 전체 시장을 독립제작사에 열어주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 영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함.

o (KCC) OFCOM 홈페이지에 Code of Practice 기준들이 있는지? OFCOM이 승인해주는 것은 독립제작사들이 제 값을 받고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게, 일종의 도와주는 행위로 되는 것인지?

o (OFCOM) 독립제작사가 성장하면 방송사들이 인수하는 경향이 있음. 방송 송출 창구(windows)의 문제임. 방송사는 방영권을 사는 것이고, 독립제작사는 저작권을 갖게 됨. 따라서 독립제작사들은 저작권을 대기업에 팔면서 자금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음.
영화, 음악, 출판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특히 Netflix나 Amazon처럼 시청자들은 전체 프로그램을 두세달 동안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PSB들은 그 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 이러한 체계는 PSB채널에만 적용됨. BBC전체 채널(채널 1, 2, 4), ITV와 Channel 4에는 메인 채널에만 적용됨.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면담 장면 >

<기념 사진>

< 기념 사진 >

Ⅲ. **보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2018년 3월 1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8.3.1.(목)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김영주 팀장(☎2110-1331)
이성용 사무관(☎2110-1333, syong2@korea.kr)

이효성 위원장, 미·프·스페인 방송통신 규제기관장과 글로벌 협력관계 강화 나서

- ‘MWC 2018’ 기간 동안 EU 적정성 평가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지지 확대 -

- 미국 FCC와 정보교류 협력체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2월 26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 행사를 참관하고, 프랑스 ARCEP(통신우정규제청) 위원장을 시작으로 미국 FCC(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및 스페인 AEPD(정보보호청) 청장을 잇달아 만나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방송통신 기술 진보에 따른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위원장은 스페인 ‘MWC 2018’ 현장에서 프랑스 ARCEP 세바스티앙 소리아노(Sevastien Soriano) 위원장 및 미국 FCC 아짓 파이(Ajit Pai)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규제 개선방안과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망 중립성 정책 및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아짓 파이(Ajit Pai) FCC 위원장은 작년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과 'EU-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의 상호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향후 방통위와 FCC간에 정보교류 등 협력 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월 1일에는 EU 28개국 중 활발하게 활동 중인 스페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AEPD(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를 방문하여,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Mar España Martí) 청장과 만나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이슈 등에 대한 협력 대화를 가졌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협력 대화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고 강조하며 "한국과 EU의 공동 목표인 적정성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Mar Espana Marti) AEPD 청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제공일: 2018.3.4.(일)
	2018년 3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김영주 팀장(☎2110-1331)
이성용 사무관(☎2110-1333, syong2@korea.kr)

이효성 위원장, 영국과 방송통신 교류협력 확대 추진

- 영국 BBC · OFCOM과 방송통신 규제 및 공영방송 정책 협력체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금) 영국 런던에 있는 BBC(공영방송)와 OFCOM(방송통신규제위원회)을 방문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BBC를 방문하여 BBC의 지배구조 변화 및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외주제작사 육성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니 홀(Tony Hall) BBC 집행위원장은 “2016년 BBC 칙허장 개정에 따라 BBC Trust가 폐지되고,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영국 OFCOM으로 경영관리감독이 이양되었으며, 아울러 뉴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이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외주제작사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BBC의 노력 및 성과가 공영방송의 가치에 부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BBC에 이어서 영국의 테렌스 번스(Terence Burns) OFCOM 위원장을 만나 유투브,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

스 활성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규제체계 마련방안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현안 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BBC 칙허장 개정에 따른 OFCOM의 역할변화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OFCOM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규제기관들과 방송통신 정책공유 및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